

광주광역시의 에이즈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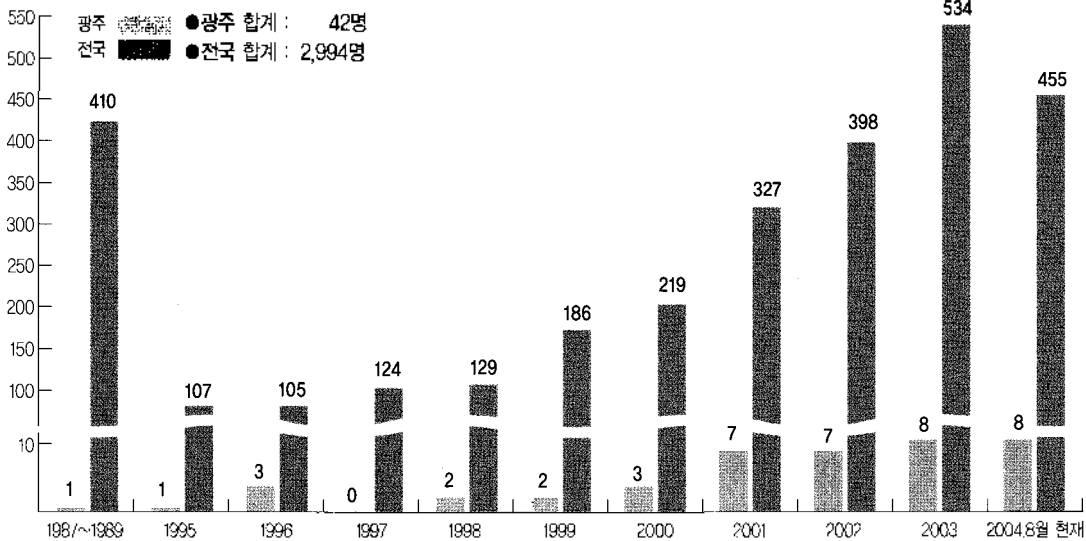
:: 이 은 광주광역시청 보건위생과

1980년대 이후로 에이즈가 전 인류의 보건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1999년에 이미 1000명, 2002년엔 2000명을 넘어섰으며 2004년 9월 현재에는 2,994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1987년 첫 환자 발생 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본다.

광주광역시 감염자의 특성

>> 연도별 신규 감염자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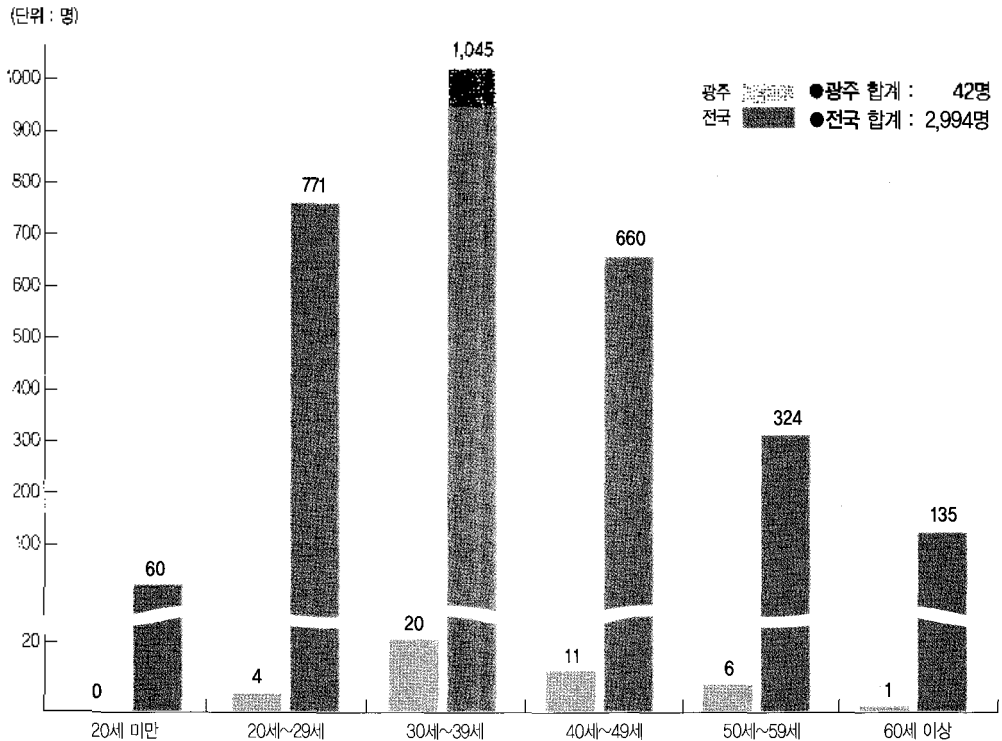
(단위 : 명)



* 2004년 전국 통계는 1월부터 9월까지임.

2004년 8월 현재 42명의 감염자(환자 6명)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남자가 40명, 여자가 2명으로 남자가 월등히 많다.

>> 발생연령별 현황



발생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49세 사이의 장년층 감염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고(74%) 있어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장년층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 감염요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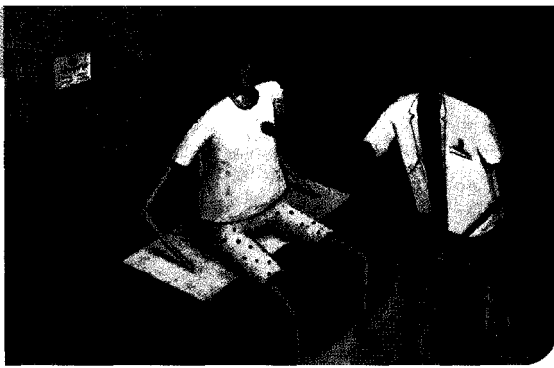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성 접촉			수혈	수직감염	약물주사	미확인	계
	국내여성	국외여성	동성					
광주	15	2	11	0	0	0	14	42

역학조사 결과 2004년 신규환자 8명 중에서 동성애자는 4명이었고, 콘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6명이었다. 발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3명은 건강검진, 1명은 수술 전 검사, 1명은 알코올성 지방간 치료, 1명은 헌혈 후에, 1명은 매독검사 중에 발견되었고 1명만이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보여 발견하게 되었다.

매년 지속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추정해본 결과 점점 서구화되면서 성문화가 변하고 성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감염자 수가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콘돔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사람은 1명도 없었고 가깝게 사용하는 경우가 겨우 3명일 정도로 성병이나 에이즈 예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또 보건소의 실험시설이 현대화되고 큰 병원이 늘어감에 따라 에이즈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의사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고,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타 지역에서 치료여건이 좋은 광주시내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음에 따라 우연히 확인되는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다.



감염자 지원

보건소별로 감염자 전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가족 및 감염자의 건강상태, 이동사항, 심리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상담) 및 약 복용, 콘돔사용권장, 배우자 검사권고 등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염자 치료 전문의료기관(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역기능검사(최소 3개월 이전)를 비롯해 수시로 혈액수치(적혈구, 백혈구) 검사, 간·신장기능검사, 당 검사, 염중수치검사 등 감염자의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담당의사와의 개별 면담을 병행하여 감염자의 정신적인 안정은 물론 일상 생활에 활기를 찾게 해 주고 있다.

2003년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감염인·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별도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것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지정이나 기타 지원 실시 등을 하고 있다.

광주요양센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광주전남회와 천주교 사회복지재단에서는 2003년 7월부터 광주요양센터를 개원하여 운영중이다. 이곳에서는 감염자가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심터 자활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연리지 공동체소식지> 발행, 명상·영어회화, 운동, 문화생활 등 각종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www.aids119.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심터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고, 전문의료인의 방문진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5명으로 국한되어 있어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심터 입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입소할 수 없어 예산지원 등 정부의 지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현재 천주교 사회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입소 인원이 9명임.

●연리지공동체 소식지 발행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을 그려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감염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매월 4회씩 각 300부씩 발행하는 소식지이다.

●홈페이지 운영(www.aids119.net)

나눔터, 신문고, 배움터, 뉴스스크랩 등 여러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감염인과 비감염인에게 올바른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제공하여 감염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정신적 안정과 삶의 활기를 찾아주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에이즈 정보망 구축

확진기간 및 수혈자 역학조사 기간 등을 단축하여 수혈을 통한 HIV 감염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고체계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정보센터>와 <에이즈 정보망 홈페이지>를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홍보·교육 및 감염자 대책

시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광주전남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중고등학교, 일반인, 군부대, 교도소, 기업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무등산 등산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판별 전시와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에이즈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에이즈 감염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 상담·면담 등을 실시하고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